



## 분단 70년, 북한 기독교의 이해

Seventy Years after National Division : Understanding North Korean Christianity

---

저자 (Authors)	김흥수 Kim Heung-Soo
출처 (Source)	<a href="#">한국기독교와 역사</a> , (44), 2016.3, 71-96 (26 pages) <a href="#">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a> , (44), 2016.3, 71-96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a>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48769">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48769</a>
APA Style	김흥수 (2016). 분단 70년, 북한 기독교의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44), 71-96.
이용정보 (Accessed)	성공회대학교 220.149.***.50 2018/02/05 04:1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분단 70년, 북한 기독교의 이해\*

김 홍 수\*

- I. 머리말
- II.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
- III. 가정교회, 전후의 기독교 형태
- IV. 봉수교회, 주체적 기독교의 실험
- V. 지하교회의 문제
- VI. 맺음말

### I. 머리말

지난 70년 동안 북한 기독교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여러 형태로 재편과 변형을 거쳐 왔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가정교회, 봉수교회, 지하교회, 이 네 가지는 북한 기독교의 역사적 변모를 잘 보여주는 것들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몇몇 공인교회들이 북한정부의 종교이용과 간섭으로 만들어진 재편된 형태의 기독교에 속한다면,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는 종교탄압 환경에서 생긴 전통적 기독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기독교를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교회들이 어떤 환경과 동기에서 재편되거나 변형되어 왔는가를 찾아보는 데 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교회들의 결성과 건립 동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남한교회의 오래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

\* 이 글은 2015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정기 학술심포지엄 ‘분단 70년, 한국 기독교의 성찰과 반성’에서 “분단 70년, 북한 기독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목원대 명예교수

남한의 연구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북한정권에 적대적인 남한정부의 자료, 월남자나 탈북자들의 부정적 증언, 혹은 불과 며칠 동안의 평양방문에서 얻은 단편적인 인상 등을 통해 종교기구로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불신해왔으며 봉수교회나 장충성당의 종교적 아이덴티티도 부인해 왔다.

종교학자 윌프레드 켄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는, 종교라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꿈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연구자가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sup>1)</sup> 이런 자세는 냉전의 환경뿐만 아니라 반종교정책이나 주체사상 같은, 종교에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생존해 온 북한의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특히 더 필요할 것이다.

## II.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2015년 11월 28일로 결성 69주년을 맞이했다. 남북분단 전 시기를 거쳐 북한 기독교를 이끌어온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 동기와 결성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방 직후의 월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제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쉬뜨코프 일기 1946-1948』(2004)와 강량욱 전기 『사랑과 믿음 속에 빛내인 삶』(2013) 등의 문헌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결성 전후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1946년 11월 28일 강량욱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기독교도련맹에서 출발하여 1974년에는 조선기독교도련맹으로, 1999년에는 지금 사용하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평양에서 간행된 『조선대백과사전』은 조선그리스도

1) 윌프레드 켄트웰 스미스, 김희성(역), 『종교의 의미와 목적』(분도출판사, 1991), 27.

교련맹을 “우리나라 그리스도교인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민주주의적이며 초교파적인 그리스도교 조직”으로 정의하고 “주체35(1946)년 11월 28일 평양에서 결성되었다”고 소개한다.<sup>2)</sup>

우리가 먼저 파악할 것은 조선기독교도련맹이 결성된 1946년 11월 28일 이전의 결성 과정인데, 이 문제는 분단 직후 북한지역 교회들의 정치적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45년 연말까지만 해도 소련 주둔군 및 사회주의자들과 종교집단 사이의 관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 세력은 일종의 통일전선을 맺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산정현교회 장로이자 10여 년 동안 평양 YMCA 총무를 지낸 조만식이 1945년 11월 결성한 조선민주당이었다. 조선민주당의 하부조직은 기독교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동료들인 최용건이 부당수, 김책이 서기장으로 있었던 통일전선적 조직체였다. 조선민주당은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창당 3개월 만에 당원이 50만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세력과 종교집단 사이의 통일전선은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 상호 관계가 소원해진 데는 종교단체나 종교인들 가운데 계급적, 역사적으로 반제반봉건 혁명의 대상이 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북한보다는 남한의 이념과 체제를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새 나라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미국처럼 “그리스도의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 데 있었다.<sup>3)</sup> 예컨대,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신의주 제1교회 목사 윤하영과 제2교회 목사 한경직은 1945년 9월 중순 평안북도의 도청 소재지 신의주에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을 조직하였다. 그들이 연합군사령부를 수신자로 1945년 9월 26일 보낸 서신에 따르면, 8월 30일 소련군의 신의주 진주 이후 좌파의 부상을 보면서 주민들을 “올바른 원칙들”(right

2)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대백과사전』 17권(백과사전출판사, 2000).

3) “Gentlemen,” 윤하영과 한경직(Ha Young Youn and Kyong Chik Han)의 편지, WCC도서관 소장.

principles)에 따라서 인도하기 위해 사회민주당을 창당했다.<sup>4)</sup> 그 후에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창당을 추진했는데, 1946년 4월경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장은 “리승만 박사나 임시정부급 김구 유석에 대한 신의”, 민주당과의 협력, 신탁통치 반대, 하지 장군과 아놀드 장군이 하는 방송의 경청 등으로 나타났다.<sup>5)</sup> 조선민주당은 신탁통치 문제로 1946년 2월 조만식이 당에서 축출되고 기독교인들이 대거 탈당함으로써 좌우합작의 성격을 상실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남한 선호와 이승만에 대한 지지는 확고했다. 예컨대, 북한지역 장로교회의 가장 큰 조직인 이북5도 연합노회는 공공연히 친미·친이승만적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비밀리에 미군정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노회원들도 있었다.<sup>6)</sup> 사회민주당과 이북5도연합노회의 정치적 입장과 11월 신의주 학생사건은 북한정권에 대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비협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협조는 1946년 장대현교회에서의 3·1운동 기념 집회와 무장 경비대의 교회 난입으로 이어졌다.<sup>7)</sup>

기독교인들의 북한정권과의 마찰은 장로교 이북5도연합노회가 1946년 10월 24일 임시인민위원회에 전달한 5개조의 결의문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결의문은 일요일에는 예배 이외의 어떠한 행사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 교회는 예배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는데, 주일 성수를 이유로 11월 3일(일요일)로 예정된 인민위원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이 선거는 소련군 사령부가 선거의 기획, 추진, 감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0월 21-27일 사이 소련군 사령부의 최고 책임자 쉬피꼬프는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만났으며, 10월 25일에는 황해도 신천군 서부교회의 김익두 목사도 만났다.<sup>8)</sup>

4) “To the Headquarters of Allied Forces,” 『대한민국사자료집』 18(국사편찬위원회, 1994), 29.

5) “38도 이북의 민정,” 『북미시보』 1946년 4월 1일; 같은 신문 “하지 중장에게.”

6)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49.

7) *The New York Times*, April 28, 1946.

인민위원 선거일을 11월 3일로 확정된 것은 1946년 9월 5일 제2차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확대회의였다. 김일성은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한번은 목사 8명, 또 한번은 10명을 따로 임시인민위원회 청사에 불러 장로교 이북5도연합노회의 선거불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8명의 목사들은 김일성에게 인민위원회가 개신교회의 종교적인 제일인 일요일에 정치적 행사를 치르고 있다면서 11월 3일의 인민위원회 선거일을 예로 들었다. 김일성은 개신교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민주개혁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투표에 신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했다. 10명의 목사들과의 모임에서도 김일성은 “5개조”는 “미제와 그와 결탁한 민족 반역자”들이 민주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기독교교리를 악용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민위원회 선거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인데 기독교인들이 왜 선거에 참가 못하느냐고 따졌다.<sup>9)</sup> 김일성의 설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선거반대는 계속되고 있었다. 쉬피코프는 일기(10월 29일)에 선거반대를 이렇게 적었다. “기독교 목사들이 좋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다. 목사들과 신부들의 비합법적인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sup>10)</sup>

이 상황에서 김일성 정권을 절대 지지하며, “그러므로 교회는 선거에 출선 참가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김양선은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에서 이 성명을 선거 직전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발표한 것으로 소개했다.<sup>11)</sup> 그러나 이 성명이 발표된 것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결성되기 전이어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발표했다는 주장은 혼란을 야기했다. 이 성명은 10월 26일 일기에서 쉬피코프가 언급한 “기독교분리파위원회”가 조직 며칠 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8) 림이철, 『사랑과 믿음 속에 빛내인 삶』(평양출판사, 2013), 103.

9) 전현수(편저), 『쉬피코프 일기 1946-1948』(국사편찬위원회, 2004), 33-34; “애국애족의 위대한 품:공화국 부주석이었던 강광욱 선생이 받아 안은 고귀한 온정에 대한 이야기,” 김홍수(편), 『해방후 북한교회사』(다산글방, 1992), 524에서 재인용.

10) 전현수(편저), 『쉬피코프 일기 1946-1948』, 35.

11)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69.

쉬띠코프에 따르면, 목사들은 김일성을 만난 날 강량욱을 의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된 기독교분리파위원회, 즉 후일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조직했다. 다른 자료는 강량욱이 1946년 10월말 자기 집에서 약 50명에게 여비를 주어 초청하여 가지고 박상순 목사를 대표로 추대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참석자 대부분은 퇴석하고 오륙 명이 남아있어서 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쉬띠코프가 말한 기독교 분리파위원회거나 조선그리스도교도련맹 결성준비위원회로 보인다.<sup>13)</sup>

김일성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건국사업에 동참하는 일이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결성준비위원장은 중국 산둥성 선교사로 일했던 박상순 목사가 맡았다. 1946년 11월 28일 평양시 서문밖 교회에서는 조선그리스도교도련맹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조선그리스도교도련맹 결성을 지지하는 각 교파들의 교인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조선그리스도교도련맹 결성을 공포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다음 조선그리스도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지방조직을 조작하였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량욱 목사를 선임했다. 전기에 따르면, 강량욱은 1945년 10월 두 차례 김일성을 만났다. 그는 강량욱에게 “진보적이며 유력한 장로, 목사들을 인입하여 교인들이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sup>14)</sup> 김일성의 관찰대로 일부 종교인들은 김일성 정권과 손잡는 것을 반대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결성하기 전까지 수차례 더 강량욱과 기독교인들과의 협력 문제를 협의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강령에서 “기독교의 박애적 원칙에 기하여 인민의 애국열을 환기하며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건국사업에

12) 전현수(편저), 『쉬띠코프 일기 1946-1948』, 33-34; 박원홍, “북조선 인민위원회 선거(1946.11.3)와 북한 기독교의 대응”(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1, 각주 167.

13) 이북기독교도연합회(회장 한경직), 기독교청년면려회 서북연합회(부회장 김봉서)가 1947년 6월 15일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 『북한민주통일운동사2 평안남도편』(북한연구소, 1990), 403-404.

14) 림인철, 『사랑과 믿음 속에 빛내인 삶』, 29.

일치협력할 것”과 “기독교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 등 4개항을 내세웠다.<sup>15)</sup> 강령은 기독교의 박애적 원칙에 근거한 건국사업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기독교의 박애를 내세운 것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조직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을 목격하고 월남한 계창주 목사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장로교의 강광욱 목사와 감리교의 홍기황이 영미의 자본주의보다도 소련의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사도시대의 성령을 받고 나서 성도들이 유무를 상통한 것은 그 적례라고 설득했다. 홍기황은 평양의 광성학교 교장을 지낸 인물이라 “공산주의의 평균분배와 의무교육”에 호응하기 쉬웠을 것이다.<sup>16)</sup> 그러나 월남한 교회사가 김양선은 이런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결성의 종교적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성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불철저한 교역자들”을 매수하여 그들을 통해 “내분을 일으켜 교회의 자멸을 도(圖)하려는 것”일 뿐이었다.<sup>17)</sup>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초기 역사에서 더 밝혀야 할 것은 결성 동기 외에도 1950년 인민군 후퇴시기에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과 활동에 깊이 가담했던 김익두 목사와 박상순 목사가 처형된 일이다. 그리스도교도련맹 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상순은 기독교인들 속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것만큼 김일성으로부터 남다른 관심과 은정을 받은 인물이었다. 김익두와 박상순의 죽음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반체제적이거나 그런 혐의를 받은 이들이 1950년 9월 이후, 특히 북한군이 퇴각하던 10월 10일 이후에 대부분 납치되거나 사살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sup>18)</sup> 김익두와 박상순의 죽음도 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던 때였다. 두 사람 모두 서울 수복과 인민군 후퇴시 남쪽과 접촉했는

15) 『조선중앙연감』(조선중앙통신사, 1949), 92.

16) 계창주, “북한기독교도련맹의 정체,” 「기독교계」 창간호(1957년 8월).

17)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69.

18) Howard P. Moffett의 1950년 10월 25일자 평양 방문 보고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5호(2001년 8월), 202-204.



데 그것이 총살과 관련되었다는 설이 있다.<sup>19)</sup>

### III. 가정교회, 전후의 기독교 형태

1950년 10월 국군과 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했을 때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위주로 반공적 종교인들이 연합군을 환영하거나 치안대와 유격대를 만들어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는 서방세계가 가져다 준 “구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했으며, 평양행 도로에서 만난 소년들은 만세를 외치며 선교사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도 있었다. 함경도 지역 기독교인들도 미군 입성을 환영했고 미군 군목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sup>20)</sup> 미군의 공습과 아울러 연합군의 북진과 퇴진 때 보여주었던 반공 기독교인들의 행위는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기독교인은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적군에 대한 이런 태도는 반역행위였다. 1951년 초 북한정부는 “반공단체 가담 처벌에 관한 결정”과 “군중심판에 관한 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쟁에서 반공단체 가담자나 한국군과 연합군에 협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인들이었다.<sup>21)</sup>

이 상황이 가정교회 탄생의 배경이다. 1950년대 이후 종교탄압 상황에서 기독교의 존속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가정교회뿐이었다. 북한에서 가정교회의 등장과 존속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들은 월남자(유사현, 평남 중화군 중화읍교회 목사), 탈북자(신평길, 노동당 간부), 북한 방문자(도날드 보리, 뉴질랜드 목사), 북한교회 지도자(고기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목사) 등 다양했다.

평양 대폭격을 목격하고 1952년 7월 12일 탈출 월남한 유사현(柳

19) 김홍수, “홍동근 목사님을 추모하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2002년 6월 1일), 1-2.

20) William Scott, *Canadians in Korea; Brief Historical Sketch of Canadian Mission Work in Korea*(n.p., 1975), 185.

21)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북한」(1995년 7월), 56.

四鉉) 목사는 1952년 9월 8일 부산에서 열린 북한실정 보고 모임에서 교회형태의 신앙생활은 이미 사라졌고, 장로나 집사들 중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5, 6명 동지들이 사사로이 모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sup>22)</sup> 이것이 이른바 가정교회의 첫 모습인데, 이에 관해서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고기준 목사도 비엔나에서 열린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1981년)에서 전쟁이 나자 기독교인들 중 다수가 월남하고 남은 교인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교인들 중의 집을 예배처소로 정하여” 비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sup>23)</sup>

1960년 전후의 비공개적 신앙생활 모습은 기독교인들의 박해 소식과 반종교문서의 기독교인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부한 평북 용천군의 이만화 목사사건(1957년), 평북 박천군에서 인민학교 교원이 일요일에 자기 집에서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친 찬송가 사건(1959년),<sup>24)</sup> 원산 철도공장의 십자가 사건(1960년)은 신앙인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었다. 1959년 간행된 한 반종교 문서는 “극히 부분적이거나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꾸준히 노력할 대신에 신이나 하느님의 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신의 생활에서까지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인정했다.<sup>25)</sup>

전후 북한사회에서의 반기독교적 사회풍조가 만연하고 있을 때 반종교 선전을 위한 몇 권의 소책자들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 소련에서 공산당이 과학적 세계관을 관점으로 해서 종교의 기원과 발달, 그것의 사회적 성격을 비판한 것처럼<sup>26)</sup>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민주청년동맹이 종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행정적 공세를 담당하

22) “대폭격 이후 북한실정,” 「기독교공보」 1952년 9월 15일.

23) 고기준, “사회주의와 기독교,”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 자료집』(1982), 66. 프린트 자료.

24) 북한연감간행위원회 편, 『북한총람 1945-1968』(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457-458.

25) 김홍수(역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353.

26) James Thrower,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USSR,” *Religion* 13(1983).

였다. 남한사회에 그 내용이 가장 잘 알려진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도 반종교 문서들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은 종교를 비판하면서 북한사람들이 경험한 전세의 종교활동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조선전쟁과 오늘 남조선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미제가 감행한 무고한 인민에 대한 학살, 약탈, 방화 등 비인간적인 야수적인 만행은 계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에 이용되는 종교의 추악하고 반동적인 본질을 말하여 주고도 남음이 있다.”<sup>27)</sup> 이 책은 이처럼 종교를 “낙후한 사상잔재”로 보고 그것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을 설명하면서 전쟁 시 종교인들의 북한주민에 대한 학살 가담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반종교 책자의 간행 이후 북한정부는 종교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탄압정책을 폈다. 수많은 사람들, 종교인 가족, 연고자들까지 탄압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는가 하면 군중들의 반정부 심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1968년 4월에 결정한 “풀어주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반동분자, 불순분자로 몰리거나 월남자 가족, 반공단체 가담자 가족으로 탄압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잘못을 말소시켜 주었다. 60대 이상의 신자로서 종교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정예배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때 북한정부는 평북의 용천·선천, 황해도 신천·재령·안악, 평남 남포·용강 등에서 200여 개의 가정예배를 허용했다.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조선로동당 간부를 지낸 탈북자 신평길이었다.<sup>28)</sup> 소위 저명인사, 고위 간부의 부모와 가족들이 중심이 된 가정예배 그룹이 많은 수를 접했다. 대표적인 가정예배 사례는 평남 남포의 안신호(안창호 누이) 예배 그룹, 평남 만경대 칠골 강선녀(김일성 외척)를 중심으로 한 칠골 그룹, 강원도 원산에서 도당위원장이던 김원

27) 김홍수(위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352-353.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의 전문을 처음 소개한 이는 고태우인데, 그는 서명을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남한에는 그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없어 서명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8)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59. 신평길은 가명.

봉의 어머니 김씨 등의 그룹을 들 수 있다. 안신호는 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인물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가정예배를 허용하되 전도 행위는 금했으며 일요일 집에서 혼자서 또는 두세 명이 종교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주요한 극소수의 열성 교인에 대하여 가정예배 행위를 허용하면서 감시도 한 것이다. 가정예배 처소는 남북대화 국면에서 100개를 유지했으나 그후 40개로 감소했고, 나중에는 “위장, 관제, 어용적인 성격을 띤” 20여 개 정도만 허용됐다.<sup>29)</sup>

1970년대 후반의 가정교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뉴질랜드의 감리교 목사로 한 때 WCC에서도 일했던 도날드 보리였다. 그는 국제주체사상 세미나 참석차 1977년 10월 평양을 방문했는데,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간부로부터 북한에 “수천 명”의 신자가 있으며 가정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sup>30)</sup>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를 앞두고서도 대사면을 단행했으며, 이 때 산골 오지로 추방되었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대거 사면되어 돌아왔고, 이들이 공인 교회이건 지하교회이건 교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됐다.<sup>31)</sup> 고기준 목사는 1981년 당시 북한에는 평양시의 60여 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500여 개소의 예배처소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면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일 것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가정교회의 예배가 남한 및 외국 방문객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함으로써 가정교회의 구성과 예배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의 가정교회들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지도를 받는다는 것도 이 때 알려졌다. 이상의 예들은 6·25전쟁 무렵부터 비밀리에 가정교회 형태의 신앙생활을

29)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60.

30) Donald Borrie가 WCC 총무 필립 포터에게 보낸 서신(1977년 10월 8일). 김홍수(역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자료집-조선그리스도교련맹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67.

31) 한 탈북자의 증언(2005년 2월 23일, 서울). 김병로, “북한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73에서 재인용.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는 사면의 특전을 입은 신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허용해 준 가정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이 시기에 지하교회거나 공개적 가정예배거나 종교행위를 한 사람은 과거에 교인이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신자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존재하는 양태를 변형시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1950년대 이후 기독교 존속의 형태인데, 기독교의 존속은 국가의 종교정책에서 눈을 돌려 신자들의 종교경험에 주목할 때 발견된다. 김홍수·류대영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에서 이러한 접근을 중시했는데, “새로운 이해”란 북한종교사 연구에서 종교인들이 주체적으로 각종 외부적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휴전 후 1960년대까지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활동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전쟁 중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중요한 인물 김익두와 박상순의 처신, 그로 인한 그리스도교련맹의 신뢰 추락, 전후에 북한사회에 불어닥친 반기독교적 기류 등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위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량욱이 1963년 10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평화대회에 참석했지만, “공화국대표단 단장”의 자격이었다.<sup>32)</sup> 1972년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활동 재개에서 주목할 것은 국제적 연대 활동이다. 1974년 2월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제네바 북한대표부를 통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서신을 보냈으며, 김성을 등 그리스도교련맹 대표들은 1975년 1월 인도 고타얌에서 열린 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ACPC)와 1976년 11월 체코의 부르노에서 열린 기독교평화회의(CPC)에 참석했다.

#### IV. 봉수교회, 주체적 기독교의 실험

북한은 1960년 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제시한 후, 1973년 6월

32) 림이철, 『사랑과 믿음 속에 빛내인 삶』, 193.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다시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주장하였다.<sup>33)</sup>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1980년에 와서 좀 더 완성된 형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김일성이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은 남과 북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되 바탕 위에서 남과 북의 양 정부가 지역자치를 하고, 중앙정부로서 군사, 외교권을 행사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1980년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주목할 만한 첫 사업은 통일사업이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대표들은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에 참석하였다. 이 역사적인 대화는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최한 대화로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네 번 그리고 1990년과 1991년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들 간의 대화는 1981년과 1982년 두 차례뿐이었고 그 후로는 북과 해외동포들 사이의 대화로 확대, 진행되었다.<sup>34)</sup>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대표들은 1986년부터는 WCC가 주최한 통일대화에도 수차례 참석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를 처음 논의한 것은 1981년의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였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고기준 목사는 이 통일대화에서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으로서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요청하는 “인간 사랑의 이념”이며 주체사상은 인간 사랑의 기독교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sup>35)</sup> 이후 1988년 고기준은 평양을 방문한 캐나다교회협의회 대표

33)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서대숙(편), 『북한 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Ⅲ권 사상·통일(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2004), 325- 335.

34)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 『조선대백과사전』 17(백과사전출판사, 2000), 495-496. 이 대화에 관한 최근의 자료로는 김순환, 『거센 바람을 거슬러가며』(2010)를 참고할 것. 기간행 자료.

들에게 북한 기독교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36)</sup> 이것은 1980년대에 북한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중심적 주체사상에 근거해서 기독교 인간론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자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체사상은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sup>37)</sup>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38)</sup>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 그리고 수령의 절대적인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인간론의 문제라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시하는 사회역사원리는 수령숭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조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수령을 숭배해야 하는 이유는 “수령이 전사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영원히 보살펴주는 위대한 은인이기 때문이다.”<sup>39)</sup>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한국 기독교의 심각한 고민은 여기에 있다.

35)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자료집”(1982), 66. 미간행물. 고기준의 글은 『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통일대화 10년의 회고』(형상사, 1994)에도 있다.

36) 캐나다교회협의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보고,” 「신학사상」(1989년 여름), 384.

3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서대숙(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Ⅲ권 사상·통일, 138.

3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44.

39) “숭배,” 『조선대백과사전』 15(백과사전출판사, 2000), 54.

주체사상이 북한 기독교 발전의 가교가 될 수 있지만 장애물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0)</sup> 수령 중심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집권자의 요구를 절대시하는데,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성찰한 신학자는 박순경이었다. 그는 “제2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기독교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1991년)의 주제 강연에서 수령은 유한하므로 역사에서 퇴진하게 될 상대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1)</sup> 주체사상의 수령 중심주의에 대한 이런 비판은 이 회의에 참석한 고기준 목사, 김운봉 목사 등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간부들로서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주체사상과 종교의 관계는 북한의 주체사상 전문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1977년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국제주체사상 세미나에 참석했던 감리교 목사 도널드 보리에게 당시 김일성대학 총장 황장엽은 “주체사상의 인간 이해에 비교되는 불교 및 기독교의 인간 이해에 대한 신학적-철학적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주체사상가들의 종교적 인간이해에 대한 첫 관심 표명이었다.<sup>42)</sup> 후일 황장엽은 북한사회에서 종교가 발전하려면 종교의 세계관이 신 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주체사상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어느 정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sup>43)</sup>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의 세계관의 이행 주장은 주체적 기독교의 가능성 또는 주체사상 사회에서

40) Ohoon Kwon, “Toward a Contextualized Church in a Unified Korea/China: Exploring Resources in Wesleyan Theology and Eastern Philosophies”(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06), 138.

41) 이 강연에서 박순경은, 수령은 역사에서 퇴진하게 될 상대적 존재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민족의 자주적 생존권을 지켜낸 인물이요 인민을 착취 지배하지 않는 수령은 독재자도 우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박순경의 강연 전문은 재일대한 기독교회총회 평화통일선교위원회(편), 『평화통일과 한(조선)반도 선교』(형상사, 1994), 48-66.

42) Don Borrie's letter to Phillip Potter, October 8, 1977.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자료집-조선그리스도교련맹 편』, 42-44,

43)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한울, 1999), 250.



기독교의 생존방식을 생각해보는 발언이었을 것이다.<sup>44)</sup> 황장엽의 입장을 토대로 삼아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한 사람은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박승덕이었다. 박승덕에게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대화는 “새로운 사상사”의 전개였다.<sup>45)</su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1980년대부터 북한식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주체사상가들도 주체적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주체적 기독교의 사상적 실험이라고 한다면 그 실험의 핵심은 인간중심적 기독교 이해였다. 사람을 중심에 놓은 종교관은 오늘날도 북한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 이는 북한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한 천도교 철학자 이돈화의 인내천 연구서 『신인철학(神人哲學)』을 사람의 지위를 신의 지위로 높인 철학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1980년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종교실험은 통일대화 및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 모색에서, 즉 정치 및 사상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종교 구상은 1990년대에는 경제 영역으로 이동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남한교회 및 국제 종교기구들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사회의 재해와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것을 사회봉사 선교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봉사를 위주로 하는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전망하기도 하였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강영섭 목사는 1997년 3월 뉴욕에서 열린 남북미교회협의회에서 “우리 련맹과 전국의 500여개의 교회 그리고 신학원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보강 완비하고 그 운명을 개선 강화하면서 사회봉사 선교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북한교회의 미래를 내다본 적이 있다.<sup>46)</sup>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북한교회들의 이런 실험은 외부세계로부터

44) 필자는 이 문제를 “주체사상 사회에서의 북한기독교의 미래에 관하여” (『피어선신학논단』 제2권1호, 2013)에서 논한 바 있다.

45)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북미주기독교자회, 『기독교와 주체사상』(신앙과 지성사, 1993), 80-86.

46) 김홍수·류대영,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다산글방, 2002), 307.

의심받았다. 의심은 1988년의 교회건립 동기와 건립 후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종교 밖에서 건립 동기를 찾는 일종의 외인론(外因論)에서 기인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외관계를 고려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산물로 외부세계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종교시설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외인론과 달리 내인론(內因論)은 북한의 기독교가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종교탄압의 상황에서도 가정교회 형태로나마 미약하게 지속되어 오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정교회 신자 일부가 봉수교회에 흡수됐다는 주장이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오경우는 평양에 있는 가정교회 신자 일부의 봉수교회 합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내인론은 전쟁 이후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정착시켜온 가정교회 스타일의 신앙행위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로 발전했다고 이해한다.<sup>47)</sup> 이렇게 보면, 북한 기독교의 소멸(또는 가짜교회)이 아니라 북한 기독교의 존속(가정교회나 봉수교회)이 보인다. 외인론과 내인론은 봉수교회로부터 제기된 북한 기독교의 이해 방식인데, 내인론으로 봉수교회를 설명하는 필자와 류대영의 관점은 북한교회의 수난과 전시용 교회라는 증언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sup>48)</sup> 이것은 당연한 비판인데, 내인론은 국가의 종교정책과 종교탄압, 그로 인한 교회의 수난과 소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정책 하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생존과 존속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 V. 지하교회의 문제

남한사회에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1980년대이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선교 단체는 물론 언론매체

47) 김홍수·류대영,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328-329.

48) 유관지, “해방 이후 북한교회사에서 강량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3.

도 지하교회의 존재를 공공연히 주장했다. 지하교회의 존재는 지하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북한을 자주 방문하여 북한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지하교회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1990년대 여러 차례 평양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방문한 조동진 목사에게 지하교회란 북한 선교를 주장하는 국내외 신자들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부 탈북자들 중에도 지하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sup>49)</sup>

지하교회의 유무 문제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선교 종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 들어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하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경우의 지하교회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에 접한 다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형태의 신앙집단은 비밀 단체라는 점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지도를 받고 있는 가정교회와는 다르며, 남한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지하교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교회의 규모에 대한 평가는 선교단체마다 다르다. 지하교회에 관여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은 대체로 지하교회 신자 수를 15-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샤머니즘적 기복적 신앙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sup>50)</sup>

북한의 지하교회 문제는 최근에는 논문이나 책으로 간행되고 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2012), 『전도는 죽음으로 하는기야』(2007)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다. 지하교회를 다루는 책들 중에서 이반석의 『지하교회 순교사: 핍박받는 북한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2015)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처형되거나 투옥된 16,984명의 성도와 관련된 761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를 분석한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Towards a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Persecuted Church in North Korea”(Fuller

49) 김홍수·류대영,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314-315.

50) 이빌립, “북한 사역자가 전하는 북한 지하성도들,” *Jesus Army*(2015년 12월), 52.

Theological Seminary, 2009)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하교회 신도들의 순교자 수, 순교형태, 기독교 신앙의 수용 방법, 지하교회의 지역별 분포 등 지하교회 자체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sup>51)</sup> 이 논문은 전후 북한 기독교의 역사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 그 가운데 1953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기가 지하교회의 형성기라면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하교회의 확산기이다. 이 시기 지하교회의 확산은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교인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된다. 논문은 공인교회의 경우 봉수교회가 건립된 1988년이 중요하듯이 지하교회의 경우 1995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지하교회의 구성원이 달라졌다. 1995년 이전의 경우 고연령층이 지하교회의 주축이었다면, 1995년 이후에는 중국생활을 경험한 40대 미만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반석의 선교학 박사 논문은 지하교회의 형성과 수난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의의를 갖지만 필자와 류대영의 『북한종교의 새로운 종교의 이해』에 대한 인용과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여러 군데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 지하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아주 최근의 글로는 김성태의 “북한 교인들의 발자취와 신앙의 여정”도 있다.<sup>52)</sup> 이 글은 6·25전쟁 이후의 북한 지하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현재 북한전역에 있는 교인 수는 최소한 20만 명은 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1950년대 북한교회 지도자들의 지하 잠적 결의, 1960년대 신자들의 소그룹 조직, 1970-80년대 신자들의 비밀교제 연락망 조직 등을 통해 지하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런 정보를 북한 신자들이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다.

남북분단 후의 북한 기독교의 역사서술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교회사가는 민경배였다. 민경배에 따르면, 북한의 기독교는 어용사

51) “북한의 1000여 개 지하교회에 13만 5000여 명의 신자 활동 중,” 「월간 조선」(2008년 10월). 이 기사는 이반석이 미국선교학회(2008년 9월)에서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 것이다.

52) 김성태, “북한 교인들의 발자취와 신앙의 여정,” 「북한개발소식」(2015년 4월), 4-6.

(御用史)와 법통사(法統史)의 두 입장에서 살필 수 있는데, “참된 기독교”로서의 법통사는 “1946년 이후 계속 공개적인 압박과 탄압을 받아와, 지금은 지상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수난의 교회사를 의미한다.”<sup>53)</sup> 이런 교회사는 간첩, 미제의 주구, 민족반역자라는 형벌의 형태로 희미하게 소식이 전해질 뿐이다. 그렇다면 1946년 가을 이후 북한 기독교를 대변해 온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역사적 위치는 무엇인가? 민경배에 따르면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는 대외 선전 목적으로 상부구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북한의 어용기관”으로 이 어용기관은 “신학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신학적 용어조차도 전혀 쓰지 않는 해괴한 단체로, 하는 일이란 다만 대남비방, 평화공세 선전뿐이다.”<sup>54)</sup> 이처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위장 종교 집단이나 괴뢰집단으로 규정하면 이것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종교단체로서의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한국기독교사 서술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및 산하교회의 배제를 정당화해준다. 그러나 공인교회와 지하교회를 인정할 경우 공인교회와 지하교회 중에서 어떤 것을 북한 기독교의 올바른 계승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남한교회는 이 문제에서 입장을 달리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경배의 입장을 따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지하교회를 북한교회의 주체로 보려고 하는데 비해 수정주의적 관점에서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북한교회의 주체로 인식하려고 한다.<sup>55)</sup>

주체적 기독교의 가능성만큼이나 지하교회의 앞날도 결국은 종교의 자유에 달려있다.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는 미국 정부 산하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였다. 이 위원회는 1999년부터 발간한

53) 민경배, “북한의 기독교,” 최석우 외, 『북한의 종교』(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9), 127.

54) 민경배, “북한의 기독교,” 131. 민경배는 『한국기독교회사』 신개정판(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556에서도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노동당 어용외곽 기구”로, “대외선전용 내지는 전시용” 기구로 단정했다.

55) 유관지, “한국기독교와 북한교회,” 김홍수·서정민(편), 『한국기독교사 탐구』(대한기독교서회, 2011), 202.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의 종교단체들은 물론 미국의 종교인들까지 평양의 종교시설을 방문하고 북한의 종교단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사실을 신앙의 자유를 실증해 주는 증거로 제시해왔다. 방문자들 가운데는 빌리 그래함 목사,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총무 및 간부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여러 교단의 대표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방문자들 중에는 평양의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행위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이 모호성은 주로 북한당국의 종교이용과 통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지하교회 발생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VI. 맺음말

홍동근 목사는 1980년대 초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기 『미완의 귀향일기』를 펴내면서 월남 이후 수십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고향 교회의 안부를 문안조차 한 일이 없는데 그 교회의 역사를 평가하고 장래를 그려보는 자신의 작업을 주제넘은 일로 부끄러워했다. 문안은 고사하고 별 연구 없이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 속한 교회를 괴뢰집단이나 위장 종교집단, 가짜교회 등으로 판단하는 글들을 보면 홍동근 목사의 말이 떠오른다. 오늘날도 여전히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나 봉수교회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들을 국가기관이라거나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단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해에는 역사 연구자들의 책임도 있는데, 교회사가들은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를 표준으로 삼고 북한 기독교사를 “수난사, 박해사, 소멸사”로 이해했으며<sup>56)</sup> 따라서 1970년대 이후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봉수교회를 위장 조직으로 의심받게 만들었다. 북한 기독교사 연구에 연구자들

56) 유관지, “해방 이후 북한교회사에서 강량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 5.

의 분단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정말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봉수교회가 일말의 기독교적 정체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까? 1950년대 이후 북한 기독교의 역사는 단절된 것인가?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가짜 신자인가?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먼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 동기와 강령을 살펴보았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에서 강한 정치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지만, 결성자들에게서 기독교의 발전과 기독교적 박애에 대한 신앙적 관심도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적 박애라는 것은 강량욱·홍기황·김익두·박상순 등 그리스도교련맹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할 원칙이다. 그리스도교련맹을 의심하더라도 이 문제를 더 충분히 해명하고서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그리스도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그리스도교 조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종교탄압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의 존속 문제도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1980년대의 교회건립은 국가의 종교이용보다는 주체사상과 연방제통일이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진행된 주체적 기독교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의 한계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의 지하교회는 여러 증언의 수집과 비교, 대조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날 텐데 그것의 확인은 여러 형태의 자료와 증거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기독교사 연구자들의 겸손한 분발로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계창주, “북한기독교도연맹의 정체,” 「기독교계」 창간호(1957년 8월).  
 고기준, “사회주의와 기독교,”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자료집』(1982), 미간행물.  
 김병로, “북한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2011).  
 김성태, “북한 교인들의 발자취와 신앙의 여정,” 「북한개발소식」(2015년 4월).

-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Ⅲ권 사상·통일(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서대숙(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Ⅲ권 사상·통일(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김홍수·류대영,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다산글방, 2002).
- 림이철, 『사랑과 믿음 속에 빛내인 삶』(평양출판사, 2013).
- 민경배, “북한의 기독교,” 최석우 외, 『북한의 종교』(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9).
-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북한』(1995년 7월).
- “애국애족의 위대한 품: 공화국 부주석이었던 강량욱 선생이 받아 안은 고귀한 온정에 대한 이야기,” 김홍수(편), 『해방후 북한교회사』(다산글방, 1992).
- 유관지, “해방 이후 북한교회사에서 강량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빌립, “북한 사역자가 전하는 북한 지하성도들,” Jesus Army(2015년 12월).
-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평화통일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한(조선)반도 선교』(형상사, 1994).
-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김홍수(역음), 『해방후 북한교회사』(다산글방, 1992).
- 전현수(편저), 『쉬띠꼬프 일기 1946-1948』(국사편찬위원회, 2004).
-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대백과사전』 17권(백과사전출판사, 2000).
- 캐나다교회협의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보고,” 『신학사상』(1989년 여름).
- 항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한울, 1999).
- Don Borrie's letter to Phillip Potter, October 8, 1977.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자료집-조선그리스도교련맹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Gentlemen,” 윤하영과 한경직(Ha Young Youn and Kyong Chik Han)의 편지, WCC Archives 소장.
- “To the Headquarters of Allied Forces,” 『대한민국사자료집』 18(국사편찬위원회, 1994).
- Thrower, James,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USSR,” *Religion* 13(1983).
- Kwon, Ohoon “Toward a Contextualized Church in a Unified Korea/Corea: Exploring Resources in Wesleyan Theology and Eastern Philosophies”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06).



투고·접수일 : 2016. 1. 11 심사 완료일 : 2016. 1. 22 게재 확정일 : 2016. 2. 13

## 한글초록

지난 70년 동안 북한 기독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가정교회, 봉수교회, 지하교회의 형태로 재편과 변형을 거쳐 왔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공인교회가 북한정부의 종교이용과 간섭으로 만들어진 재편된 형태의 기독교에 속한다면,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는 종교탄압 환경에서 생긴 전통적 기독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교회들이 어떤 환경과 동기에서 재편되거나 변형되어 왔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교회들의 결성과 건립 동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남한교회의 오래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남한의 연구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기구로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봉수교회, 장충성당의 종교적 아이덴티티를 부인하고 그것들을 위장 종교집단, 가짜교회,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사가를 역시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를 표준으로 삼고 북한 기독교사를 “수난사, 박해사, 소멸사”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1970년대 이후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봉수교회를 위장 조직으로 의심받게 만들었다. 북한 기독교사 연구에 연구자들의 분단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정말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봉수교회가 일말의 기독교적 정체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가짜 신자인가?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먼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동기와 강령을 살펴보았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결성에서 강한 정치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지만, 결성자들에게서 기독교의 발전과 기독교적 박애에 대한 신앙적 관심도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적 박애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련맹 결성을 주도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원칙이다.

이 글은 종교탄압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의 존속 문제도 가정교회, 봉수교회, 지하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1980년대의 교회건립은 국가의 종교이용보다는 주체사상과 연방제통일이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진행된 주체적 기독교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의 한계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지하교회는 여러 증언의 수집과 비교, 대조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주제어: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가정교회, 봉수교회, 주체사상, 지하교회, 통일 대화, 강랑육, 고기준

Abstract

## **Seventy Years after National Division: Understanding North Korean Christianity**

Kim Heung-Soo

Korea Christian Federation, house churches, Bongsu church, and underground churches are forms of the re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Christianity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While the Korea Christian Federation and official churches belong to the reorganized Christianity made of religious intervention and religious utilization of North Korean government, house churches and underground churches are transformation of the Christianity formed in the environment of religious repression. This essay explores that on what environment and for what motive the North Korean Christianity has been reorganized and transformed.

Our concern about the motives of the 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and the churches grew out of the negative understanding of them by South Korean Churches. South Korean church leaders and experts of North Korean religions have denied the religious identity of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and its churches, and have argued that they were the camouflage religious organizations and fake. Historians of Korean Christianity also have understood the history of North Korean Christianity as “history of suffering, history of persecution, history of disappearance” and made the Korea Christian Federation and Bongsu Church, which have come into being in after the 1970’s, have been distrustful. This shows tha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has influenced upon the understanding and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North Korean Christianity.

Do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and Bongsu Church not have Christianity identity? Are all the members of the Bongsu Church and Chigol Church false believers? Keeping these questions in mind, this paper, first of all, investigated

the motive and articles of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organized in November 1946. Though a strong political motive is found i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it is true that we could find religious concern over the development of Christianity and Christian philanthropic spirit from the organizers of the Federation. The problem of Christian philanthropy mentioned in the Federation's articles should be investigated more deeply to understand the church leaders who organized the Korea Christian Federation.

This essay analyzed also the problem of the continuance of Christianity under the religious suppression through the house churches, Bongsu Church, and underground churches, and argues that church establishment of the 1980's can be understood as an religious experiment of Christianity under the surroundings of Juche thought and Koryo Confederal System. We do not know what the underground churches really are, but the substance of the underground churches will be uncovered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estimonies on the North Korean Christianity.

Key-words: Korea Christian Federation, house church, Bong Su Church, Juche thought, underground church, unification dialogue, Kang Yang Uk, Ko Ki Jun